

2014년 아산상 사회봉사상을 수상한 (사)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을 만나 현재의 모습과 활동을 소개합니다.

## 사람을 살리는 사회적 금융을 실천하다



사회연대은행 김용덕 이사장(왼쪽에서 다섯번째)과 직원들이 청년통합지원센터 알파라운드 앞에 모였다.

코로나19 시기에 (사)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은 금융위기에 처한 극저신용대출사업을 맡아 바쁜 시간을 보냈다. 수천 명의 전화를 받아 상담하고 심사하는 와중에 한 청년에게 메일이 왔다. ‘이름 모를 심사위원에게’라는 제목의 메일에는 “부모도 묻지 않는 내 안부를 물어줘서 고맙습니다”라고 쓰여 있었다. 안준상 상임이사는 직원들과 메일을 공유하며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절감했다.

“당시에 우리 시니어사업에 참여했던 은퇴 시니어들이 전화 상담과 심사를 맡아주셨어요. 항상 ‘식사는 하셨어요, 건강은 어떠세요’하고 인사하셨는데 마음에 와닿았나봐요. 또 수천만 원의 빚을 진 청년은 단 몇 백만 원이라도 도움을 받으면 죽지 않을거 같다고, 누군가 나를 도와준다는 생각에 다시 살

수 있을거 같다고 하더군요. 우리처럼 금융을 통한 자립을 목표로 하는 단체도 119나 생명의전화처럼 고귀한 생명을 다루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 취약계층의 금융 안전망이 되어주다

2002년 설립된 사회연대은행은 2003년 마이크로크레딧(Microcredit) 사업을 시작했다. 마이크로크레딧은 제도권 금융회사와 거래가 어려운 저소득자와 저신용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무담보·무보증으로 돈을 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연대은행은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청년 예비 창업자에게 자금을 대출해주고 마케팅 전략, 창업 세무·법률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조언으로 자립을 지원했다. 2022년 말까지 소상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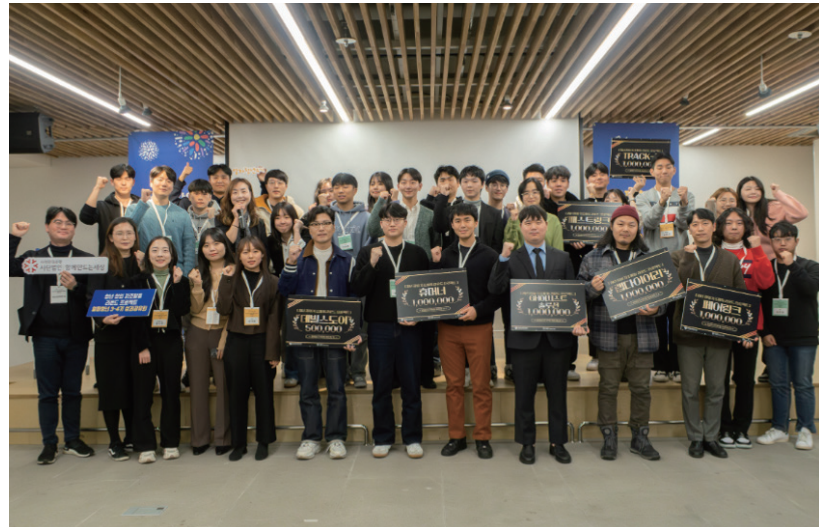
인을 대상으로 5,279건, 609억 5천만 원을 지원하며 사회적금융의 가치를 증명했다. 마이크로크레딧의 유용성이 입증되자 2009년 정부에서도 미소금융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금융소외 계층을 위한 소액대출사업을 시작했다.

공공지원이 늘어나자 사회연대은행은 더욱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2012년에는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후원으로 대학생 학자금 부채상환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2013년에는 퇴직자들의 성공적인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시니어브리지사업을 시작했다.

또 사회적기업가 육성과 사회적기업 지원, 자립준비청년 지원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처하며 사업을 활발히 전개했다. 사회연대은행은 청년 금융 소외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공헌의 주체로서 시니어 담론의 지평을 넓히고자 노력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2014년 아산상 사회봉사상을 수상했다.



사회연대은행 20주년 기념백서를 보여주는 김용덕 이사장.




사회연대은행의 청년창업지원사업 ‘프로젝트 알파 청년’ 성과공유회에 참가한 청년들.

김용덕 이사장은 사회연대은행이 가진 힘을 ‘변화’라고 말한다. “항상 다른 것을 고민하고 변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사회가 그만큼 빨리 변하고 있으니깐요. 우리나라 제도권 금융은 서민들에게 정말 가파르고 좁은 길입니다. 한발 빼앗 하면 천 길 낭떠러지로 그대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같은 금융 안전망 역할을 하는 기관이 필요합니다.”

### 사회적은행을 향해

사회연대은행은 2019년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함께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 청년통합지원센터인 알파라운드를 열고 청년 지원에 더욱 힘을 쏟고 있다.

“우리 사회연대은행은 사실 ‘밑지는 금융’이에요. 하지만 우리 사업에 참여한 은퇴 시니어들이 청년들의 멘토가 되어 주고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이 후원자로 또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주며 나눔의 선순환 구조가 생깁니다. 우리같은 비영리단체가 건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사회가 건강해집니다.” 김용덕 이사장은 “누구나, 언제나 찾을 수 있는 사회적은행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꿈”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글 편집부